

「마음 열고 | 찬양과 나눔」

-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(찬송 545장, 구 344장)
-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.

1914년 크리스마스이브, 인류 최악의 전쟁터 한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독일군 참호에서 울려 퍼진 “고요한 밤, 거룩한 밤” 노래에 영국군이 캐럴로 화답한 것입니다. 총성이 멎고 노래가 흐르던 그 짧은 순간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폐허 위에 작은 평화의 꽃이 피어난 시간이었습니다. 절망의 먹구름 사이로 찬란한 무지개가 비추듯,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드러납니다.

「마음 다해 | 말씀과 나눔」**1.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(1-7절).**

1) 하나님이 노아와 자녀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?(1절)

2) 하나님이 피 흘리는 것(살인)을 엄격히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?(6절)

나눔 1 하나님은 사람에게 “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”고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하셨습니다. 하나님이 명하신 ‘번성’은 ‘상호존중’, ‘상생’, ‘공존’이 전제된 더 깊은 차원의 번성입니다. 하나님의 뜻하신 ‘생육, 번성, 충만’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.

2.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십니다(8-17절).

1)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?(8-10절)

2)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?(11절)

3)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두신 것은 무엇입니까?(13-17절)

나눔 2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멀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구름 사이에 친란한 무지개를 걸어 두셨습니다. 무지개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온 세계에 중단 없이 제공된다는 보증입니다.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.

나눔 3 에스라가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‘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’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은 것처럼, 소망을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. 이름 모를 들풀 한 포기, 작은 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전 지구적인 언약이었습니다.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하듯,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.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.

『마음 모아 | 함께 기도』

삶 _ 제 삶에 먹구름이 몰려올 때 절망하기보다 그 속에 숨겨진 주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소서.

공동체 _ 우리 공동체가 분열과 위기로 신음하는 사회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보여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.

*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

1.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
2.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
3.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

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리라
이 말에의 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안에서 이 루리
그 귀 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 할 무슨 일이 있을까

후렴
결어 가세 믿음 위에서 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
결어 가세 믿음 위에서 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도